

2014년 11월 17일 새벽말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내용의 말씀이 시작되어서 한 주일 동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늘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직접적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십니다. 계통을 통한 역사이고, 그리고 사명을 통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통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인간을 통해서도 나타나십니다. 또 각종 인간이 보고 느끼는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서 역사 하시는데,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늘 우리에게 풍기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물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또한 공의,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악하게 만든 것이 없습니다.

호랑이가 악하다, 곰이 악하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악하게 굴면 악해지지, 악할 리가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선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은 인자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선하고 인자하게 창조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항상 하나님은 인자하게 선하게 공의롭게 대하지만, 사람들이 인자하게 공의롭게 선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대할 때 인자하고, 선하게 대했는데도 자꾸 악하게 굴면 동물을 발로 차고 묶어놓고서 버릇을 고치는 것입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고 선하게 대했는데도, 만물을 선하게 인자하게 모두 창조해 놓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대하지 못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악의가 됩니다. 만물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들도 인자하게, 그리고 선하게 창조해 놓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불의의 법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할 수 없고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한 대로, 사람이 물건을 만든 대로 써먹지 못하고 다르게 써 봐요. 다르게 써먹으면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대로 써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자와 선하지 못하면 거기에 미치도록 그만큼 애를 쓰면서도 거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직됩니다. 그 단계까지 올라가

야 됩니다. 못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으니, 영원까지 가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됩니다.

창조의 법칙을 어기면 존재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 속에서 감사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도 감사할 것이 생기지만, 행동해보면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많이 활동할수록 많이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행동을 안 하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루를 지내보고, 이틀을 지내보고, 1년을 지내봐도 자꾸 행동함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동치 않고 방구석에 가만히 쳐 박혀 있으면 감사할 것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추운데 방안에 있으니 따뜻하고 좋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퇴보적인 세계라 감사를 해도 진가를 모르는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는 향기 없는 감사라고 하십니다.

항상 움직이고, 뛰고 달리고, 씹어 봐야 인간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어느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에 굉장히 영리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첨단으로 가치 있게 멋있게 만들었어도 그것을 안 씹으면 회사에 대해서 감격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씹어 보니 너무나 멋있고, 여러 가지가지로 활용이 많이 된다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 때 5가지를 보고 만들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7가지로도 씹습니다.

내가 씹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씹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을 때는 더 지혜롭게, 슬기롭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감격하고 감사할 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합니까?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만들었는데 그렇게까지 씹습니까? 우리가 안 됩니까?” “그래도 괜찮던데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씹어 봐야 감격할 것이 더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얼마나 만들었는지도 씹어 볼 때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뜻있게, 가치 있게, 유능하게 만든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감격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많이 되는 것입니다.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이런 뜻, 저런 뜻을 깨우쳐 주려고 왔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하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에는 잠재능력과 권능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못 써먹고 있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은 신에게 별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잘될 때마다 신에게 감사하고 그만큼 뛰고 달리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무언가 감격할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적인 감격을 합니다. 더 감사하고,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뛰어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땀박질 하면서 자꾸 무엇인가 배우고 터득할 때 감격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격할 것이 10의 1, 10의 2, 그러다가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활동적으로 합니다. 어제도 애들 데리고 저 산으로 들로 돌아다녔습니다. 안 가면 여기도(운동장)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의무적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하루에 8km씩은 다녀야 되겠습니다. 안 가고 여기서 해 보면, 운동장을 뛰자고 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뛰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깅 안 나온 사람들은 어제 갔다 온 코스를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약한 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표어를 선생님이 내 걸었습니다. 강한 자만이 존재할 수 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눈의 가시가 됩니다.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만듭니다. 기분 좋게 사는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기에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지 땅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코앞에서 운동하는데도 안 나와 보더라는 것입니다. 6바퀴 뛰는 것이 힘들면 걸어다니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너무 게으릅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르다고 7-80% 지적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게으르냐?”

“어떤 것이 게으릅니까?”

“자기가 1시간에 100발짝을 가야 하는데, 100발짝을 못 가고 60발짝을 갔다면 게으른 것이다.”

실력이 없는 것도 게으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 해서 실력이 안 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활동을 시키라고 하셔서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절약도 하고, 그리고 활동도 하고 모두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섭리사에서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중심과 같이 움직이고,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뒤에서 처진 사람들은 사탄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흑암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와서 직접 살고 같이 뛰어 돌아다니는데 같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흑암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 사탄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외부 사람 누가 왔는데, 말씀만 들으면 졸린다고 해서 “사탄의 주관을 받아서 그렇다. 100%다. 확인하자.” 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딱 한 명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두 그런 사람으로 인정 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주관을 받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이깁니다. 하나님, 신이 움직이는데 그까짓 것쯤이야!

나는 보름동안 잠을 안 잤어도 이겨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신령한 말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은 이상, 들으면 물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콩나물에 물을 부어도 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나물이 크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뛰고 달리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새 춥다구? 추운 것이 아닙니다. 겨울 날씨가치고 따뜻한 날씨입니다.

열대 지방에서는 한국으로 피서를 옵니다. 시원한 나라로. 그 더운 나라, 30~38도가 되는 그 뜨거운 데서도 삽니다. 우리야 추우면 집안으로 쪽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열대 지방에서는 쪽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에어컨을 틀은 곳에 들어가 봤자, 알레르기만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뛰고 달리면서 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추우면 방안에도 들어가야 하지만, 모일 때는 쪽쪽 모이고 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뛰고 달리면 아무리 영하

20도가 된다고 해도 뜨겁습니다.

추운 지방에서는 영하 80도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하 80도에서 그 나름대로 산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영하 10도 같은 것은 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활동하면 안 춥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과 같이, 항상 활동해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생깁니다.

이번 주에 감사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활동하고 뛰어 돌아다닐 때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선하게 착하게, 그리고 자비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못 쓰게 되면 가치 발휘를 할 수가 없고, 쓰는 사람이 손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써먹게 해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써먹고, 말씀도 써먹고, 모두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흑암과 사탄의 침범을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능히 모든 것을 그리함을 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강과 공의와 진리로 함께 하고 영원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과 공의와 진리가 영원하고 영원할지어다.

전국, 온 캠퍼스, 청년부들, 장년부, 중고등부 모두가 다 활발하고 뛰고 달림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해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게으른 것은 성경마다 다 지적했는데, 주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적 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적을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진리와 사랑과 공의 가운데 삶이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